

“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

■ 이종윤 원로목사

급변하는 사회에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영역과 책임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 구조와 변화된 가치관의 도전을 받고 있는 현대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목회를 개발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알팍한 기술과 요령을 터득한 몇몇 목회자들은 교인 수를 증가시키는 일에는 일단 효과를 보았다고 자처하고 있으나 시대와 사회를 변혁시킬 능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기에는 미흡했다고 자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시공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는 자기 목회를 소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양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말씀계시와 행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는 교회보다 우선한다. 예수님이 최고의 목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회는 교회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목회는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러나 교회내 다른 은사가 있듯이 다른 목회도 있다. 하지만 모든 목회가 그리스도의 목회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부활하심으로 실현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한다. 예수님의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향하신 것이다. 목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회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뜻을 만나고, 이 세상을 향하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구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빛을 비취주는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으므로 목회자는 거듭난 신자를 만들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목회를 교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듯이 하나님의 목회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계속되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듯 목회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 없는 목회는 죽은 목회다.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고 그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이 있고 뜨겁게 기도로 아버지께 여쭙어 가면서 균형 잡힌 신앙 인격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1376호] 2013년 7월 27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William Turmel
Hymn	38..... Congregation
*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Offering Prayer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15:21-28 Pastor
Sermon	"The Faith of the Canaanite Woman" Pastor
* Hymn	365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 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아굽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료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제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말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정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너(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땅, 탕, 썬 코 카 마이 랑 시무알 레이 난 쌍 쨌다 시우 킴을 랑 흐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르, 비시누밴도, 보디스뜨, 린똌, 수란똌, 방글라데제, 김태섭,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나는 섬기러 왔노라”

■ 마 20:24~28

오래 전 영락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손님들을 식당이 아닌 교우들의 집에서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날도 어느 장로님 댁에서 점심식사 초청을 받았는데 마침 외국인 목회자 두 분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하신 장로님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을 하였고 저는 그 장로님의 인사말을 그대로 직역하여 통역하였습니다. 그 말은 들은 외국인 목회자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외국인 목회자는 “원더풀”이라며 이 인사말이 칭찬 받을만한 좋은 풍습이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차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족합니다.

1. 성공적인 삶의 의미란?

성공적인 삶이란 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불행합니다. 리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미련해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야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 1:15-16). 사도 바울의 일생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일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 속으로는 이것이 목적이라 하면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 또는 이래선 안되는데 하면서 역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줄기차고 변함이 없는 후회가 없는 삶이 잘산 삶입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이며 위대한 섭리였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복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2.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은 시작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생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기유에 태어나실 때부터 베풀기 위해 오셨고, 주시려고 오셨고, 희생하려고 오셨고,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 삶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올바르게 사는 삶이고, 성공적인 삶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불평의 원인은 대부분 섬김을 받으려는데 있습니다. 섬기려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또한 받으려고만 하는 데서부터 분란이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권세 있는 자라 생각하니 불안함이 앞서고 섬김을 받으려만 하니 실망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변변치 않는 자존심 때문에 고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는 예수님 말씀의 참뜻을 묵상하면서 삶의 눈높이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죽도록 섬겨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사랑하겠노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3가지의 철학적 이기주의를 버려야 타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섬김이란 정신적인 문제이며, 섬김의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미학적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진정어린 가슴을 여는 섬김이 전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섬김의 진정함을 체휼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여러 사람이 살게 됩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섬김은 우리들 내면에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맺는 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웃음과 기쁨으로 행하는 회생에는 감사와 은혜가 동반되지만 자신을 드러내려는 회생은 무의미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요 2-24-25).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같이 대속물로 나의 전부를 내어주고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권세를 잡을 것이니 이 복을 받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양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준권 목사	이강진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오치열 장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6:1-2 인 도 자
 찬 송 80(101) 다 함 께
 기 도 임우택 집사
 성 경 계 1:9-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인자(The Son of Man) “... 설 교 자
 * 찬 송 205(236)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조영자 권사
 성 경 롬 6: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성도,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영언박수강

설 교 서준권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렘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랜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양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minster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입

1. 정기당회 / 10일(수) 수요예배 후 가이오 실

◆ 알 림

1.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2. 5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3. 601호 예배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어,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김봉배(외과, 통증클리닉), 노선균(흉부외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정려성 목사 소개

전,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역임

대한기독교서회 이사장

총회, 공천위원장, 사회부장

서울강남문인협회 상임이사 및 부회장

현, 서울강남노회 은퇴목사회 회장

서울강남문인협회 시분과회장

세진교회원로목사

◆ 장 례

- 故 김익현 성도(11교구 김응기 집사의 부친, 이옥선 집사의 시부) / 5월2일(화) 별세, 4일(목) 발인
- 故 김정숙 집사(2교구 이준호 집사의 모친, 이은희 권사의 시모) / 5월4일(목) 별세, 8일(토)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63명	335명	274명	1,472명	142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4/3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30일	현금	47,661,500	
"	특별예배비, 선교비		2,452,000
"	찬양대사례, 찬양대 운영비		17,820,000
"	교회학교운영비, 장학비		1,587,500
"	구 제 비		2,000,000
"	경 조 비		760,000
"	출 판 비		270,000
	소모품비		200,000
"	통신비		149,880
	차량유지비		298,400
"	세금과공과		1,550,170
	복리후생비		2,852,750
"	수도광열비		73,370
	환경유지비		186,400
	수선유지비		3,854,730
	식당운영비		1,077,480
	합 계	47,661,500	35,132,680

🌳 넘어야 할 체면의식

잘못된 의식을 개혁하기란 바른 일을 추진해 가는 것보다 쉽지가 않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체면 문화의 의식 구조 속에 깊이 빠져 있다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다. 대학 입시에 낙방한 자식을 앞에 놓고 분통을 터뜨리는 어머니의 말속엔 아들의 미래나 자식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염려보다는 남부끄러워 어찌하면 좋으냐는 말이 서슴없이 터져 나온다. 세상에서 잘못을 범한 이들이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그 결과에 대한 대책보다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가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말로 일관된다. 얼굴 문화 즉 체면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기에 걸치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왔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다 경쟁심이 오늘의 과소비, 과다혼수, 사치 풍조에 우리를 빠지게 한 것이다.

이제는 체면의 풍토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알찬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